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한신애 아가타

(? - 1801)



한신애는 충청도 보령에서 양반의 서녀(庶女)로 태어났다. 장성한 뒤 한양에 사는 조례산의 후처로 들어갔는데, 이때 강완숙 골롬바의 전교로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강 골롬바의 집을 오가며 정복혜 칸디다 등과 함께 교회 일을 도왔고, 1800년 여름에는 주문모 야고보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김연이 울리아나를 비롯한 여성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강 골롬바와 함께 여성 공동체를 이끌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때, 한신애는 정 칸디다가 거두어 온 천주교 서적과 성물들을 자기 집 공간에다 숨겼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그의 이름이 박해자들에게 알려지면서 결국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고 만다. 그는 형조로 끌려가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당하였지만, 신앙을 굳게 지키며 그 누구도 밀고하지 않았다. 마침내 강완숙 골롬바, 김연이 울리아나 등 동료들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고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때는 1801년 7월 2일(음력 5월 22일)이었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대림 제4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이사 45,8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제1독서 이사 7,10-14

화답송 시편 24(23),1-2.3-4ㄱ, 5-6(◎7ㄱ과 10ㄷ 참조)

◎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주님의 것이라네,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

○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

○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콥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

제2독서 로마 1,1-7

복음 환호송 마태 1,23

◎ 알렐루야.

○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

복음 마태 1,18-24

영성체송 이사 7,14 참조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 동방 박사, 헤로데, 요한, 악마

마태오 복음은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1,1)에 대해 말하기 위해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벌써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실이 문제는 복음서 전체에서 거듭 되풀이될 주제입니다. ‘이분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이 질문에 응답해야 합니다.

루카 복음과 달리, 마태오 복음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이 없습니다. 소식을 들은 건 요셉입니다. 그는 처음에 거부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요셉은 말하자면 족보를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뜻을 접음으로써 응답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 대상을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깨어 하늘을 바라보는 이들, 희망을 품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별을 통해 그들에게 표지를 주셨습니다. 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어쩌면 자기들과는 상관없이 있을 수도 있는 “유대인들의 임금”(2,2)을 경배하러 나섭니다.

“유대인들의 임금”이 태어나셨다는 말에 당황한 건 헤로데입니다. 전혀 기다리고 있지 않던 소식이 갑자기 전해집니다. 그는 당연히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들려온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씁니다. 베들레헴 일대의 아기들을

다 죽인 겁니다. 하지만 오시는 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큰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는 못합니다.

3장에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요한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때가 되어 오신 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은총이었겠지요. 그런데 그의 역할이 양면적입니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 종말을 준비하게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이 다가오는 진노를 피할 수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눈을 끄는 것은 4장에 등장하는 악마입니다. 사람들은 요셉, 동방 박사, 헤로데, 요한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분을 맞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악마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분의 뜻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유혹하여 뜻을 바꾸시게 하려 합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변질시키려 합니다. 예수님이 빵의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세상 권세를 찾으셨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달라지고 말았겠지요.

마태오 복음은 하늘나라가 선포될 때 나타나는 여러 반응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저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복음을 들으며 귀를 막고 도망가는 것보다, 복음을 입맞대로 바꾸어 놓고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예수님을 ‘쉬운 그리스도’로 바꾸어 놓는 게 더 위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주교들의 다스리는 임무

「교회헌장」 제27항

「교회헌장」 제27항은 주교들의 세 번째 봉사 직무인 ‘다스리는 임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주교들은 맡겨진 개별 교회를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사절”로서 다스립니다. 보편 교회와 관련하여 교황에게 부여되는 호칭이 이번에는 개별 교회에 대해서 주교들에게 적용됩니다. 개별 교회의 다스림은 “조언과 권고와 모범”뿐만 아니라 “권위와 거룩한 권력”으로 수행됩니다. 이 권력은 양 떼를 진리와 성덕 안에서 기르는 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의회는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루카 22,26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이 통치 권력은 주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행사”하는 것으로, 주교들에게 고유하고 정규적이며 직접적으로 주어집니다. 이 권력의 힘으로 주교들은 법률을 제정하고, 판결을 내리며, 예배와 사도직에 관련된 모든 것을 조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닙니다. 공의회는 주교들의 통치 권력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맡겨진 신자들을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목자로서 자신의 양 떼를 보살피는 주교들의 사목 임무가 주교들에게 “온전히” 맡겨져 있습니다. 교황의 대리자로서가 아니라 맡겨진 백성의 수장으로, 주교들은 어떤 인간적인 권력으로부터 양도되지 않는 “자기 고유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교황의 권력이 개별 주교들의 권력을 소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주장하고 강화하고 옹호”합니다. 이러한 통치 형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것으로, 성령께서

확고히 보호해 줍니다.

마지막 단락은 주교들의 통치 사명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공의회는 후기 신약 성경에 영향을 준 ‘가정 신학’을 바탕으로, 하느님의 가정을 다스리도록 가장이신 하느님께서 주교들을 파견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교들이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하느님의 가정을 이끌 때 필요한 것은 “착한 목자의 표양”입니다. 착한 목자는 양 떼를 섬기러 왔고, 양 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러 오셨습니다(마태 20,28; 요한 10,11 참조). 사람들 가운데 뿔뿔히 주교들은 자신도 약점을 짊어지고 있으므로, 무지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너그럽이 대할 수 있습니다(히브 5,1-2 참조).



주교는 착한 목자의 표양을 바라보아야 한다.

〈착한 목자〉, 갈라 플라치디아 무덤의 모자이크화, 5세기, 라벤나(이탈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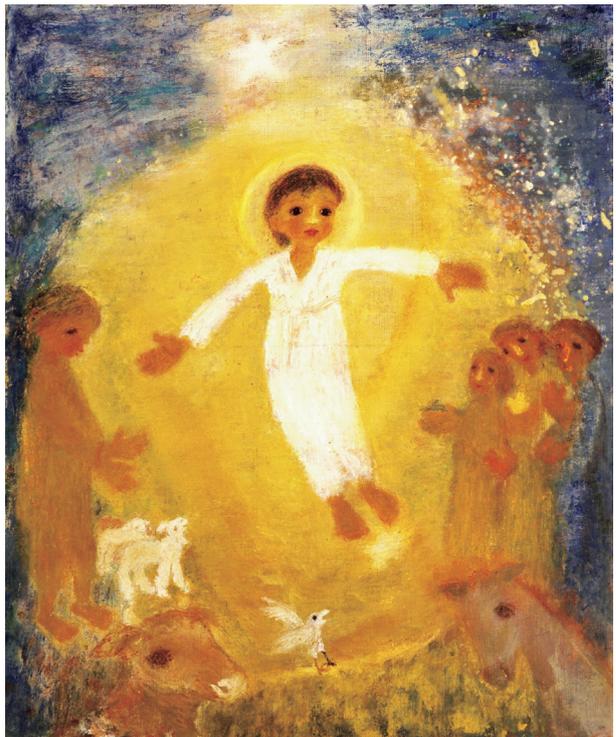
이어서 공의회는 주교들이 신자들을 친자처럼 사랑하고, 협력을 권고하며, 귀를 기울이고, 기도와 설교와 사랑으로 돌보며, 예비신자들도 그렇게 돌볼 것을 권고합니다. 주교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신자들이 사도직 활동과 선교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신자들이 주교들과 일치를 이루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

밤하늘을 수놓은 빛

2000년 전,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마구간 위로 유난히 빛나는 별 하나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 작고 누추한 곳에 이르기 위해 지식과 명예, 부를 지닌 동방박사들이 긴 여행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목동들도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빛나는 별을 따라 발길을 재촉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허름한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만났습니다.

여기 노오란 황금빛 속에 순백의 신생아 복을 입은 어여쁜 아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얼룩과 흠결투성이인 이 세상을 끌어안기 위해 여린 두 팔을 활짝 펼칩니다. 연약하고 작은 왕, 하지만 그의 위력은 놀라워 마구간의 냄새나고 누추한 지푸라기마저 눈부신 황금색으로 물들입니다. 아기 위에 반짝이는 별은 그에게 이르게 해주는 귀한 표식이지만, '빛' 자체이신 아기 예수님 앞에선 그저 희미하게 깜빡이는 작은 별일 뿐입니다. 오로지 그분만이 '영원한 빛'으로 빛납니다. 얼핏 보면 허름한 마구간이 아니라 고귀한 천상 공간이 아닐까 착각할 지경이지만, 마구간이 틀림없습니다. 전경에는 이 귀한 존재를 제일 먼저 알아본 소와 나귀가 있고, 이들 사이에는 마치 성령이 임한 듯 작고 하얀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뒤로는 순백의 양 두 마리와 네 명의 사람이 아기 주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그린 송경(宋璟)은 평생 이 같은 순수함과 사랑을 간직하고 산 여류작가입니다. 운 좋게도 저는 가톨릭미술가회에서 송경 선생을 만났고, 이분의 순수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한국 성미술계의 큰 어른인 최종태 선생도 “송경의 그림을 보면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또 종교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체로 우리는 신앙과 예술과 삶이 서로 각각인 생활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송경(1936~2022), <밤하늘>(큰별), 2000년, 캔버스에 유채, 60.6cm×50cm

진정한 아름다움, 인생, 종교에 대한 깊은 고찰로 이끄는 작품을 만나는 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작가가 자신이 아름답게 하느님 안에서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미술을 일컬어 가장 높은 경지의 예술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종교음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진'(眞)을 추구하는 예술에서 '순수'는 기본 조건일 텐데, 요즘은 '순수'라는 말이 생소하고 촌스럽다고 합니다. 날로 세련되어져 가는 현대사회라지만, 예술의 본질인 '순수'라는 아름다움을 상실해 가는 것은 아닌지, 정서적으로 메말라지는 건 아닌지 조심스레 우려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잃어가는 동심과 순수를 바로 작가 송경의 작품에서 마주합니다. 밝은 화면 앞에서 마치 고향을 만난 듯 친근합니다. “신앙과 예술과 삶”이 일치된 작품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빛어졌지만 흠집투성이인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기 위해 이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진심으로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



교구 성소후원회 신년 하례 미사

일시 1/2(금)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교구 소식

교구 1월 청년 프로그램 - 바오로딸 수도회와 함께하는 HOPE STAY 피정

1/13(화) 20시 청년센터 에파타 (의정부)

1/21(수) 20시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일산)

대상 청소년 및 청년(15~45세), 주일학교 교리교사

문의 청소년사목국 카카오톡채널

신청 ▶



한마음 사계 피정 - 1월, 2월 (대침묵 피정)

	1월	2월
일시	1/23(금)~25(주일)	2/6(금)~8(주일)
강사	정남진 안드레아 신부	이종경 비오 신부
주제	주님의 기도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피정비	1인 20만원 (1인 1실)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신청 ▶



지역아동사목위원회 직원 모집

모집 1명 (계약직, 추후 정규직 재임용 가능)

근무 주 5일, 40시간 근무

장소 동두천가톨릭센터, 포이마이노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업무 청소년(선주민, 이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돌봄, 지역아동사목위원회 소속 단체 지원 업무, 각종 행사 지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접수 채용 시까지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12/26(금)까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홍성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김대은

문의 031-850-1507 (주말, 공휴일 휴무)

특별헌금

헌금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결과보고

지난 11월 9일, 평신도 주일 특별헌금으로 120,252,491원이 모여졌습니다.

이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로 보내져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12/26(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일상에서의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식별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운영위원장 겸 교육담당)
문의: 010-2127-0032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분노다루기피정 (2박3일): 1/21(수)~23(금)
예수마음기도 (8박9일): 1/23(금)~31(토)
예수마음기도 (4박5일): 2/2(월)~6(금)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
문의: 010-9099-2337, www.jesumaum.org

2026년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대피정

일시: 1/3(토) 15시~18시
장소: 가톨릭 의과대학 마리아홀 1층 대강당
(서울 성모병원)
내용: 새해맞이 성모님 봉헌식, 미사,
성체조배, 성체거동
특별초대: 이창민 마르치아노 신부 (살레시오회)
회비: 1만원, 794001-04-122952 (국민은행)
주최: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AYG)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영신수련 8일 피정: 1/14(수)~23(금)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1/30(금)~2/1(주일)
장소: 서울 오류동 (1,7호선 온수역 10분)
문의: 010-6890-7223

청주 초정성령회관 1박2일 치유 피정

일시: 매월 마지막(토) 14시 ~ (주일) 14시
회비: 2만원 (1박 3식) / 청소년 무료
장소: 초정성령회관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 셔틀버스 운행 (조치원역,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6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자연순례·한라산: 1/10(토)~12(월),
1/16(금)~18(주일), 1/22(목)~24(토),
1/26(월)~28(수), 2/2(월)~4(수),
2/7(토)~9(월), 2/20(금)~22(주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예수회 영신수련 대침묵 피정

날짜: 12/26(금)~1/4(주일), 1/8(목)~17(토),
1/23(금)~2/1(주일)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
문의: 02-3276-7794, 7790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1/16(금)~19(월), 2/13(금)~16(월),
2/20(금)~23(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 (수유동)
회비: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본당별 출장피정)

성모솔숲마을 무료 치유대(對) 피정

값 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1/9(금) 14시 ~ 11(주일), 2/20(금) 14시 ~ 22(주일)
3/13(금) 14시 ~ 15(주일) [2박3일]
문의: 010-3209-3955 (문자 접수)
※ 경북 청도역에서 무료 픽업 신청 가능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시~16시,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사: 12/23 이상기 회장, 12/30 한마르타 수녀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제주 산들평화순례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연말연시피정(한라산·일몰·일출): 12/31(수)~1/3(토)
제주순례: 1/9(금)~11(주일), 1/23(금)~25(주일),
2/6(금)~8(주일), 2/27(금)~3/1(주일),
3/27(금)~29(주일)
한라산 눈꽃 영실산행:
1/15(목)~18(주일), 1/30(금)~2/1(주일)
추자도 성지순례: 3/5(목)~8(주일),
3/12(목)~14(토), 3/18(수)~21(토)
문의: 064-732-4702 면형의집

 **교육 · 모집 ▶▶**

생활성가와 함께하는 한마음 청소년 음악 캠프

1차: 2/20(금)~21(토), 2차: 2/21(토)~22(주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인원: 100명 (선착순) / 회비: 11만원 (식대 포함)
문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oran

금촌 성당 교중미사 반주자 모집

연습: 매주(목) 19:30, (주일) 09:30
자격: 교중미사 반주경험 또는 오르간 전공자
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
접수: sophia1229@uca.or.kr
문의: 010-5938-3846 단장
031-941-3650 사무실

노들담 첫영성체 교리서 연수

일시: 1/24(토) 09:30 / 회비: 9만원
장소: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일산)
비대면: 2/9(월), 21(토) 09:30 / 회비: 8만원
문의: 010-3829-7667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전기2차 신입생 모집

교황청 승인 교회법학 전문가 양성
원서접수: 1/5(월)~23(금) 17시까지
제1과정 (예비과정)
-철학/신학, 62학점 (수강료 학기당 100만원)
제2과정 (석사과정)
-교회법, 88학점 (수업료 50% 장학금 혜택)
※ 홈페이지 gscl.catholic.ac.kr 참조

미사반주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기간: 1/5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소르간연구소
문의: 02-338-3793

2026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세례 3년 이상,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2년 과정: 교리학과 (주간, 주5일)
종교학과 (야간, 주4일)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접수: 1/16(금)까지
문의: 02-747-8501, ci.catholic.or.kr

2026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접수: 2/20(금)까지
문의: 02-745-8339, ci.catholic.or.kr

2026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정시 신입생 모집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여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자격: 고교졸업(예정)자, 수도자, 만학도로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원서: 12/29(월)~31(수), 인터넷접수
문의: 02-740-9704, 9705
https://songsin.catholic.ac.kr

2026 서강대 미래교육원 멀티미디어학전공 5차 모집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3년 이내 학사취득 가능
수능, 내신, 계열 관계없이 지원 가능
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 편입, 취업, 대학원 진학 가능
모집: 게임그래픽&웹툰만화애니메이션/
게임시&개발/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접수: 12/22(월)~1/16(금) / 전형일: 1/17(토)
문의: 02-705-8678, scec.sogang.ac.kr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띠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신입생 모집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모집: 간호학과, 자율전공학부(사회복지, 상담심리)
접수: 12/29(월)~31(수)
문의: 043-270-0100, 0109

일산 시니어합창단 2026 단원 모집 - 오디션 면제

KBS홀 순교자현양음악회, 평화음악제 공연
연습: 매주(금) 19시, 고양아람누리 연습실 (정발산역)
대상: 55세 이상 누구나 (오디션 면제 기간)
지휘: 이상희 모니카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베드로

마석 성당 교중미사 지휘자·반주자 모집

자격: 천주교 신자, 가톨릭 전례에 대한 이해 필수
지휘자: 지휘 혹은 성악 전공자
(성가대 지휘 경험자 우대)
반주자: 피아노, 오르간 경험자
(성가대 반주 경험자 우대)
봉사: 주일 11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연습: 매주(수) 20시~21:30
(주일) 10시~10:30, 12:30~13:30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접수: kth0643@uca.or.kr, 모집시까지
절차: 1차 서류심사 후 면접
봉사료: 유급 (면접 후 결정)
문의: 031-593-4231 마석 성당

(주)평화누리 장례지도사 교육원 교육생 모집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중심 장례지도사 양성 교육
문의: 02-2258-8480 교육원

2026년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채용

분야: 고객지원팀 시설영선반
업무: 환경미화(영선) 및 시설업무
근무: 08:30~17:30 (주5일, 변동근무)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마감: 채용시까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anmaum84.com 참조



의정부성모병원 나프로임신센터

가톨릭 영성에 맞는 과학적 치료방법으로
인공시술없이 건강한 자연임신을 도와드립니다.
진료: 월~금, 08:30~17시
대상: 나프로임신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단체
문의: 010-8048-5200, www.cmclub.or.kr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2/2(월) 이탈리아 일주 (11일, 535만원)
2/3(화) 일본 나가사키 (4일, 155만원)
3/17(화) 산티아고 도보 순례 117km (12일)
4/7(화)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4/13(월) 멕시코 과달루페, 페루 (12일)
5/18(월) 이탈리아, 프랑스 루르드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619호
※ 홈페이지 www.catholictravel.co.kr 참조

베트남&마카오 성지순례

김대건 신부님 서품 180주년 기념
1/15(목) 출발 (6일) / 지도사제 동행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2/14(토) 나가사키 순교성지 - 구정연휴
(4일, 169만원)
3/10(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60만원)
3/24(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4/7(화)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50만원)
4/14(화) 홍콩, 마카오 (4일, 170만원)
5/12(화)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2일, 59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성지순례 - 14박15일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월 말)
주관: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문의: 010-5735-4578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3/2(월)~13(금) 튀르키예, 그리스 (498만원)
3/2(월)~12(목) 영국, 아일랜드 (680만원)
3/9(월)~20(금)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이탈리아 (545만원)
문의: 02-2281-9070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2/6(금) 중국 상해 (4일, 119만원)
2/14(토) 구정특선 - 남인도 성지 (7일, 399만원)
2/18(수) 나가사키 (4일, 165만원)
2/21(토)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13일, 549만원)
3/11(수) 유럽 성모발현지 (10일, 475만원, KE)
3/15(주일)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9만원)
4/8(수) 이탈리아 일주 (11일, 535만원, KE)
4/10(금) 산티아고순례길 150km (13일, 590만원, KE)
4/20(월) 동유럽 순례 (11일, 515만원, KE)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2일

3/28(토) / 회비: 599만원 (+2,200유로)
가톨릭 트래블 - 루르드, 파티마 순례포함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Ch +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추가하세요
QR CODE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 홈에서 채널 추가

성 소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모 임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청소년·청년 남자 성소자		010-3800-1579

영광송

영광송은 삼위일체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영광송을 의미하는 [독솔로지아] (doxologia)는 '영광'을 뜻하는 그리스어 [독사] (δόξα)와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 (λόγος)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영광송이 있습니다. 짧으면서도 친숙한 소영광송("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일과 대축일 미사의 시작 때 바치는 대영광송("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그리고 감사기도 끝에 바치는 마침 영광송("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이 있습니다. 또한 사은찬미가 (Te Deum)를 비롯한 여러 영광송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송은 창조와 구원 활동을 하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 영광을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광송의 기원은 유대인들의 찬양 기도문인 [브라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는 찬양과 영광으로 끝납니다. 이러한 관습은 시편에도 잘 나타나, 큰 단락을 매듭짓는 41장, 72장, 89장, 106장, 150장은 모두 영광송으로 끝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은 그리스도교로 이어져서 서간과 묵시록에도 책과 주요 항목의 시작이나 끝에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송이 등장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소영광송은 삼위일체적 세례 양식문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제와 항상"이란 구절이 첨가되었습니다. "이제와 항상"이란 표현은 유대인들과 사도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게다가 후대 서방 라틴

교회에서는 "처음과 같이"라는 구절을 덧붙였습니다. 이와 달리, 동방 교회에서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이라는 영광송을 오늘날에도 사용합니다.

소영광송의 문구는 4세기에 있었던 그리스도론 논쟁으로 혼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성자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문제 삼은 아리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성자를 성부와 동등하지 않고, 하등하다는 종속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광이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께"라는 기도문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과 사도로부터 이어오던 교리에 어긋나는 내용이 바탕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삼위일체 신비의 정통 교리를 보존하면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라는 기도문을 고수하였습니다.

소영광송은 일상뿐 아니라 전례, 특히 시간 전례(성무일도)에서 자주 바쳐집니다. 매 시간 기도의 도입과, 시편 및 찬가의 마무리는 소영광송으로 끝납니다. 시편 낭송 때 마지막 부분에서 소영광송을 바치는 건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확인하는 것과 초기 수도승들이 시편을 낭송하던 방법과 관련됩니다. 「성무일도 총지침」에서는 영광송이 "시편의 적절한 종결이고 구약의 기도예다 그리스도론적이고 삼위일체론적인 의미와 찬미의 의의를 부여하는 것"(123항)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



천주교의정부교구 성모순례지 **행주성당**

주 임 신 부 : 홍유선 임마누엘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성모뽕소승진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요일	17:00	월, 화, 수, 목, 금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일	09:00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상시, 사무실 문의
성 시간	매월 첫 금요일 15:00	단체 순례객 미사 신청		축복예식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사무실 문의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 소식

- 이번 주 분당 축일 명단
25일 노엘라: 주유미 임마누엘: 정지웅
26일 스테파노: 박선우, 이종혁, 이석리

공 지 / 단 체

-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안내

12월 24일 수요일		12월 25일 목요일
평일 미사	오전 11시	오전 11시
성탄 성야	오후 8시	

- 홍유선 임마누엘 주임 신부님 영명 축일
12월 25일은 주님 성탄 대축일이며 행주 성당 주임 신부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성탄 판공 성사
성탄 판공 성사는 성탄 대축일 전까지 매 미사 전, 후 성사를 보시고 성사표는 고백실 바구니에 넣으거나 본당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 12월 사목협의회회
일 시: 12월 21일 오늘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축 ※ 영 명

홍유선(임마누엘) 신부님
영명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 교중미사 주송자, 예물봉헌 담당

12월 21일	주송자	신은석 안젤라
	이영자 세실리아, 구미경 리베라따	
12월 28일	주송자	전옥자 수산나
	고백주 안토니오, 허경옥 도로테아	

우리들의 정성(12/8 - 12/14)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2건 400,000원
주 일 헌 금 900,000원
전 교 주 일 2차 583,000원
- 감 사 헌 금
최희숙 안젤라 50,000원
재속프란치스코회 형제회 1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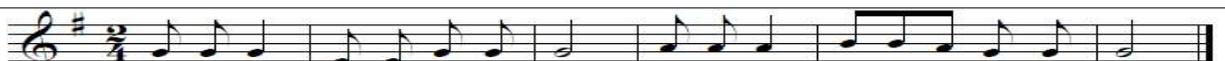
교무금, 감사헌금	농협 217013-51-118905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	--

계좌 입금시 책정자의 이름으로 하시고 입금 후 본당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공 지 / 단 체

- 연령회 12월 월례회의
일 시: 12월 28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화답송



(후렴)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시다.